◇불학원에서 교리공부를 하고 있는 학인스님들.

◇옥불사의 상징인 백옥부처님. 미얀마에서 모셔왔다.

상해 옥불사를 통해 본 중국불교

정기법회 수만 신도 운집
새 기운 싹터…통계 미비

옥불사(玉佛寺)는 '인간의 거리'로 알려진 중국 상해 도심에 위치한 명소다. 주지 진선스님(중국불교협 부회장)에 의하면 하루 평균 참배객이 2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대(1882년)에 세워진 이 절은 임제종 계통의 선종 사원이다. 절이름 옥불사는 미얀마에서 모셔온 백옥좌불(높이 1.95m)과 길이 1m의 백옥와불에서 유래됐다.

우리의 강원격인 불학원이 있는 이 절에는 1백60여 스님이 공부를 하고 있다.

옥불사 불학원은 1986년 9월 문혁후 처음으로 4년제 졸업생 22명을 배출한 알려진 강원이다. 젊은 학인들은 경전 공부 뿐 아니라 서예, 산수화 등을 익히고 좌선 수행도 한다.

초하루 보름에 정기법회를 여는데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날은 3~4만명이 동참, 분향을 못할 정도라고 한다.

강경법회는 날을 정해 7일간 설하는 데 우리나라 山林법회처럼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공부한다.

수륙법회도 거행하는데 구경나온 주민들까지 동참 경내가 꽉 찬다. 사진으로 본 모습이 마치 해인사 정대불사를 연상케 한다. 또 스님들이 불전함에 복리기금을 넣는 광경도 볼 수 있다. 이때 거사들은 일어서서 합장을 하며 스님들의 자비에 동참한다.

옥불사의 또 하나 특징은 사찰음식이다. 素菜·素點 등으로 불리는 옥불사 야채요리는 하루에 6백여명이 사 먹을 정도다. 아예 절안에 레스토랑이 마련돼 있다.

옥불사 외에 상해의 용화사 사찰요리도 유명하다고 중국불교협 국제부장 신재부씨는 귀띔한다.

이 절 장경루에는 경책이 잘 보존돼 있으며, 수·당·명·청대의 문화재급 성보가 상당히 많다.

중국에도 범패는 물론 찬불가가 있다. 절강성 천태산 국청사가 1987년에 펴낸 범패 및 불교가곡집 '普聲佛事'란 책에보면 범패와 '청량가곡' '불교가곡' 등이 수록돼 있다. 이 책에 의하면 황자(黃自), 숙우매(肅友梅), 전인강(錢仁康)씨 등 중국 근대의 저명한 작곡가들이 찬불가를 남겼다. 이 책을 감수한 황지륭(黃智隆)거사의 '나무관세음보살' 등은 대표작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북경에서의 한중일 불교대회 때도 학승들이 찬불가를 불렀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중국불교는 우리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대부분 절은 아직도 관광 목적으로 복원되고 있다. 문혁 때 환속시켰던 스님들이 다시 승려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중국에는 노스님과 젊은 학승뿐 중년층 스님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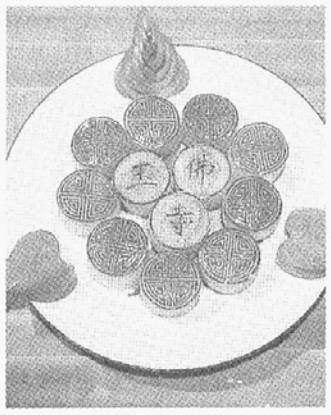
사찰을 찾는 신도들은 향을 사루고 촛불을 밝히나 도교나 민간신앙과 습합된 기복성이 짙다.

우리일행을 태운 버스 운전석 앞에 걸린 일본관광객이 주고 갔다는 '平成觀音交通安全守護' 부적은 중국불교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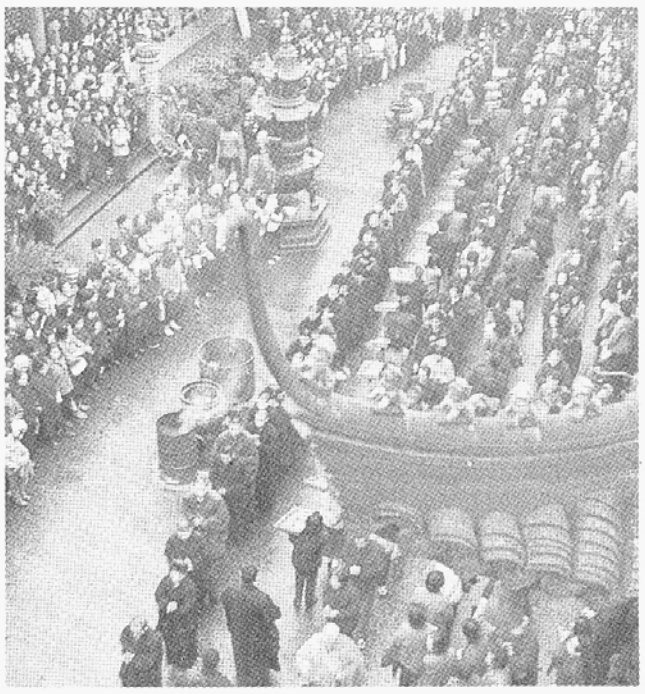
불학원서 1백60여 스님 공부
수·당·명·청대 성보 다수보관

1953년 설립된 중국불교협회나 국무성 종교국에는 불교신도 및 종교현황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중국불교의 현실을 잘 대변한다. 그러나 92년 장춘 반야사의 신도들이 경학공부를 하고 나오다 한국스님들에게 공손히 합장하던 모습이나 옥불사를 볼 때 중국불교는 이제 곳곳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상해=최정희 국장



◇옥불사의 소채음식은 널리 알려진 사찰 요리다.



◇옥불사의 수륙재

만화

法句經

법 구 경

* 일천(千)의 장 *
가장 뛰어난
승리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

이 향 원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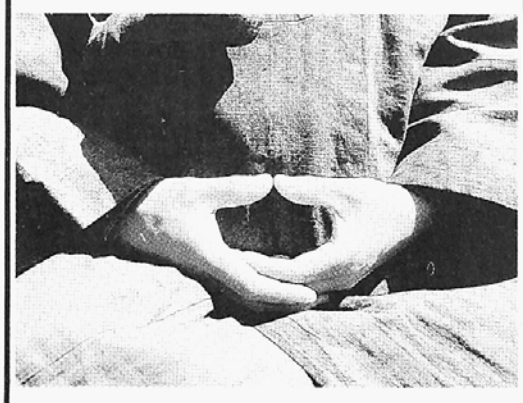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衰(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전화 032-613-4027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전화 0416-856-3280	